

세계 경제의 신 만리장성, 대중화 경제권

경제적 비교우위 이용한 현실적 협력 관계

우리나라 수출에 지장 예고...구체적 연구 필요해

한때 세계는 21세기 전환기에 직면하여 경제부분에 새로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런바 국가이익을 위하한 인접지역의 경제협력화 현상이 그것인데 '대중화 경제권'도 이러한 국제경제 조류의 한 예라 볼 수 있다.

여기서는 '대중화 경제권'의 개념과 범위 및 전망 등을 간단히 설명하고자 한다.

대중화 경제권은 소위 '중국인 경제권의 위험'이라 언급되는데 최근 세계경제의 용어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협력화 현상이다. 대중화 경제권은 학자에 따라 그 범위에 다양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는 데 일관적으로 중국, 대만, 홍콩을 있는 삼각구도의 경제공동체이다. 더불어 동남아시아의 화교계 본토의 부지 또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여러 정치적 갈등을 포함하고 있어 논의의 편의상 범위에서 제외한다.

대중화 경제권의 범위는 제도적으로도 미흡하지만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다. 70년대 이후 남미나 대만과 같은 국가에서 이념적 우위보다는 경제적 실리추구의 본질적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 또한 이러한 국제질서에 맞춰 78년 개혁개방정책을 결정하게 되고 이후 대만은 미중관계와 중국과 소규모 무역과 무역협정을 맺기 시작한다. 대중화 경제권의 본격적 양상은 92년 이후 가속화되는데 국제적으로 대만과 중국의 새로운 정책이 간접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한편적으로 대만과 중국은 서로 경제적 비교우위에 있다. 대만은 좁은 토지, 빈약한 천연자원, 노동력 부족으로 임금이 비싼 반면 중국은 기술수준이 떨어진다. 이러한 것들이 상호보완 관계를 맺으면서 순차적이고 기능적으로 역할을 하는 것이다. 87년 중국으로의 이주와 함께 중국은 국제금융을 기지로서, 재정적 부자와 서비스 코어, 제3세계 부자의 중간역 역할로서 중국과 밀접한 관계에 있고 대중화 경제권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94년 이후 중국의 홍콩특별 반환은 화남지역과 홍콩이 이미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자리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시사해 준다. 그러나 대중화 경제권은 이러한 긍정적 부분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있다. 우선 중국과 대만은 오랜 이념적 갈등으로 형성된 적대감과 통일문제에 대한 입장차이로 인해 원활한 경제관계를 맺기에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 외에도 중국사회주의 제도와, 대만의 사회주의 제도 가능성, 3개지역 중국인민의 미묘한 심리의 불일치 등은 해결할 숙제로 남아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대중화 경제권은 중화사회의 공통의 문화와 관습 등 지역특성에 우월한 요소를 갖추고 있어 세계경제 흐름에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대중화 경제권 성립은 수출주도형 국가인 우리나라에게는 다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앞으로의 전망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경제권 성립으로 촉진된 대만-대륙간의 통상논의는 우리나라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편적으로 대만과 중국은 서로 경제적 비교우위에 있다. 대만은 좁은 토지, 빈약한 천연자원, 노동력 부족으로 임금이 비싼 반면 중국은 기술수준이 떨어진다. 이러한 것들이 상호보완 관계를 맺으면서 순차적이고 기능적으로 역할을 하는 것이다. 87년 중국으로의 이주와 함께 중국은 국제금융을 기지로서, 재정적 부자와 서비스 코어, 제3세계 부자의 중간역 역할로서 중국과 밀접한 관계에 있고 대중화 경제권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94년 이후 중국의 홍콩특별 반환은 화남지역과 홍콩이 이미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자리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시사해 준다. 그러나 대중화 경제권은 이러한 긍정적 부분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있다. 우선 중국과 대만은 오랜 이념적 갈등으로 형성된 적대감과 통일문제에 대한 입장차이로 인해 원활한 경제관계를 맺기에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 외에도 중국사회주의 제도와, 대만의 사회주의 제도 가능성, 3개지역 중국인민의 미묘한 심리의 불일치 등은 해결할 숙제로 남아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대중화 경제권은 중화사회의 공통의 문화와 관습 등 지역특성에 우월한 요소를 갖추고 있어 세계경제 흐름에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발표회를 준비하는 중국어과 지역학 학회

대표 김상협(동양·중국어 2)을 만나

—이민 학제에 참여하게 된 계기—

“개교 4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제의가 들어왔다. 학회내에서 나름대로 연구도 하고 심포지엄도 진행하는데, 우리 지역학회의에 대한 학원들의 관심이 부족하다. 대다수 이념 회의에 지역학의 질적향상을 알리고 학우들의 참여도를 높이고자 제안을 받아들였다.”

—학회의에서의 연구 및 활동은—

“중국을 이해하려면 언어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등 사회 전반에 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본다. 교과과정에 중국시사를 다루는 과목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상당히 부족하다. 이에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들을 3~4년 전부터 1, 2학년 학제에 참여하게 된 계기”

“학회의에서의 연구 및 활동은, 중국을 이해하려면 언어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등 사회 전반에 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본다. 교과과정에 중국시사를 다루는 과목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상당히 부족하다. 이에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들을 3~4년 전부터 1, 2학년 학제에 참여하게 된 계기”



학회의에서의 연구 및 활동은, 중국을 이해하려면 언어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등 사회 전반에 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본다. 교과과정에 중국시사를 다루는 과목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상당히 부족하다. 이에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들을 3~4년 전부터 1, 2학년 학제에 참여하게 된 계기

“외대 학우들이 지역학의 절실함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2학년 중심으로 연구에 왔다. 그러나 학우들의 지조한 참여도, 연구의 힘 부족 등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발표회 준비는 어느정도 되고 있는가—

“전 구성원이 방학 기간에 걸쳐 교육을 받고 연구를 하며 열심히 준비해 왔다. 하지만 구성원들이 지역학인대 2개학이 충분한 기간은 아니었다. 또한 자료부족과 심비

‘한국사회의 이해’에 대하여

민중에게 입각한 한국사회 분석서

한국사회 모순구조를 과학적으로 인식해 그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하고자

“한국사회의 이해”는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산물이다.

한국전쟁 이후 이 사회를 지배한 냉전시대유물론이 우리나라의 사회과학은 주로 한반도 역정을 겪어왔다. 그러나 80년 ‘서울의 봄’은 냉전시대유물론의 균열을 가져왔고 80년대 대중운동과 지식인 투쟁으로 사회과학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됐다. 87년은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할 수 있다. 여러 조류의 사회과학 이론이 소개되고 그에 입각해 한국사회의 대변 분석과 설명의 논쟁이 벌어졌다. 이 책은 이러한 시대정신을 반영한 것이다.

6월항쟁 이후 대학사회도 자율화, 민주주의의 실용을 본격적으로 내걸었다. 경쟁대에서는 ‘법과 사회’, ‘마르크스주의 사회과학’, ‘제국주의와 한국사회’ 등 다양한 교과목이 개설, 학생들의 학문적 욕구를 자극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한국사회’의 이해였다. 이 강좌는 한국사회 모순구조의 과학적 인식과 그에 대한 해결방안의 모색이라는 과제 아래 다양한 시각이 참여, 공동강의를 전개했다. 이 강좌에서는 사회학, 경제학, 역사학, 문학 등을 각자 전공으로 하는 9명의 교수들이 유기적인 연계를 이룬 주제들을 매우 한 차례씩 번갈아 강의했다. 이 강의노트를

목이 90년 2월 교재로 처음 출판됐고 올해 그간의 학문성과의 진전과 강령적 정부 출범등 사회정책의 변화를 감안해 개정판을 출간했다.

이 책은 서설과 한국 근현대사, 사회구조, 사회운동 등을 다루는 3부 11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학생들에게 한국사회의 현실을 초보적인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에서 쓰여졌다. 사회과학은 현실에 대한 설명을 기본 목표로 하는 현실과학이다. 이 책의 필자들은 비과학적 시각에서 정치, 경제, 노동 등 한국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에 대한 판단과 처방을 학생들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전달하는 데 집결된 인적적 노력을 두었다. 이 책은 지난날 외국의 학설을 소개하거나 추상의 이론을 일기하던 방식의 것과는 달리 한국 사회의 현실과 직접 대결하고자 했다. 한국적 사회과학을 토착화하려는 문제의식의 공유에서 출발한 한 학회의의 대한 열정과 진실을 요하는 것이 사실이고 이런 열정의 진정성이 이런 사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믿어진다.

이 책에서 한국사회를 분석한 시각은 서설에서 쓴 바와 같이 제반론제를 ‘민중’의 입장에서 조망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민중적 시각은 마르크스가 자본주의



한국사회의 이해

최근 내용의 이적설 여부를 놓고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 ‘한국사회의 이해’는 현재 피간 상태다. 민중학을 비롯 학계에서는 ‘학문·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부’의 이러한 태도를 강력히 규탄하고 있다.

를 분석하는 ‘방법’에 많은 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책은 마르크스 사회과학 방법론에 입각한 것이고 이 점에서 고등대학교 입학반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그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시대의 역사적 과제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그런데 공인당국에서 우리의 이러한 시각, 즉 반식 사회과학 방법론 자체를 ‘이적’이라 몰아부친다면 우리나라의 사회과학은 불모지가 되어버릴 것이다. 이 책이 공인당국자들에게 주독의 대상이 된 전 전 장한 이유는 한 단 더 있다고 확신한다. 그것은 우리 사회의 지배세력을 이 드러내기를 꺼리는 학계사회의 중요한 문제점을 분명하게 드러내어 분석하였다는 점인 것이다. 물론 그러한 분석의 대상중에는 민중을 위한 올바른 비판을 추구하고자 하는 양의 교수님도 미미으로 몰아부치는 공인당국도 포함되리라 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숨기지 보려는 태도를 드러내야 한다고 믿는다. 그 보다 나은 사회로 만드는 길이라고 믿고 있다.

정진상
〈경성대 사회학 교수〉



제1회 종합학술제 준비위원장 김명호(정책·정치 3)를 만나

제1회 종합학술제 준비위원장 김명호(정책·정치 3)를 만나

“학회 활동의 토대 마련과 지역학의 학과 도입을 강제할 수 있는 학술제가 돼야 한다”

“글로벌리즘과 지역학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외부인사의 초청 강연회와 토론회를 준비했다.”

또한 중국어, 대만문화와, 포르투갈어 등 3개국어 지역학 모임의 학생발표를 마련했다.

발표한 이후 정보통신의 급격한 발달과 더불어 소위 글로벌리즘(세계화)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학생들의 지역학연구의 필요성은 더욱 대두되고 있다.

한때 학술상황이 이렇게 열악하다보니 기획에서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학술제가 연례 대중행사로서 정착하기 위한 방안은?—

“우리는 학교에 비해 다양한 외국어(영어)를 수 있어 지역학 연구에도 유리한 조건에 있다. 이대인 한사람 한사람이 변화하는 세계정세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이를 다양한 학과 활동을 통해 충실한 답이 내려질 학술제는 연례 대중행사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를 위해선 학교측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이제 찾길래 내린 외대 학술제는 우리의 미래를 위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학문적 노력과 하나하나 다하여 간단히 전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선 외대인들과 많은 관심과 사랑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이지를 기자〉

학/술/단/신

민교협 정책 강좌

한·미 관계 학술적 조망

민교협(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은 ‘현대적 한반도와 미국 관계의 학술적 조망’이라는 주제로 학/술/단/신 학술교류를 개최한다.

이번 정책강좌는 한반도와 미국과의 관계를 역사·정치·군사·경제·문화의 측면에서 학술적으로 조망해볼 예정이다.

또한 올바른 한반도 통일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도 토론한다.

9월5일(월)부터 16일(수)까지 열리는 이번 강좌는, 주 3회 오후 7시에 성균관대 종합강의실에서 진행된다.

강점은 아래와 같다. △9월5일: 한반도와 미국의 역사적 관계—정해구(한국정치연구회 연구

원) △7일(수): 남한과 미국의 정치·군사 관계—정영태(인하대 정치외교학과) △9일(금): 북한과의 협력과 북한경제—대희순(정치학과) △12일(월): 세계화론—정영태(외대 경제학과) △정영태(외대 경제학과) *문의전화: 888-3633

한노협 정책토론회

임·단투 평가와 민주노총

한국노동운동협의회(한노협)는 정책토론회가 30일(화) 오후 6시30분 대우호텔에서 열린다.

94 임·단투의 교훈과 민주노총 건설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정책토론회는 양대세력 간의 대화와 협력을 비롯, 김근형 서울지하철노조 사무국장, 김대연 강원노조 정책국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철도·지하철 종업원, 병원노조원들의 공동교섭·공동투쟁 등 94년 상반기 임·단투협상과 단체협상 투쟁의 성과와

Breakthrough

취직영어

- 출제 유형별로 심도있는 해설
- 출제 경향의 확실한 분석과 완벽한 예상
- 독해, 작문, 문법, 어휘, 생활 영어의 총망라
- 단기간 완성을 위한 편리한 편집

- 국내 유수 기업의 출제경향 파악
- 자세한 해설과 스피드 있는 진도
- 100% 합격률 위한 총정리
- 최신 출제문제 철저한 분석
- 빈출 문제의 집중 연구

오창근 선생님의 공개강의

매주 1요일 오후 2시

시사영어학원 / 731-2412

취업을 위한 헌정이 살아있는 영어 강좌가 여기 있습니다.

국내 대기업의 문제 출제 경향에 관한 파악하고 취직영어에 철저 분석해 배는 오창근 선생님만의 강의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시사영어학원에서 공개 강연합니다.

최고의 취직 영어의 부활을 맞이하십시오

오창근 / 10,000원

SAMJ BOOKS

서울시 중구 신당동 251-82

TEL. 234-6560 FAX. 232-3710

삼육외국어학원

S.D.A는 미국, 일본, 대만, 인도네시아 등 각국이 지배학원으로 유명하며 외국어 회화의 전문교육기관입니다.

★각학원 선착순 모집★

- 개강: 9월 1일(목)
- 접수: 서울, 남영 8월 28일부터
- 신림 8월 26일부터
- 영등 8월 21일부터

서울학원	영어, 일어	T. 서울 (244-1275)
영등학원	영어	T. 영등 (543-2270)
남영학원	영어, 일어	T. 남영 (706-3615)
신림학원	영어	T. 신림 (889-4637)
인천학원	영어	T. 인천 (032-82-3064)
수원학원	영어	T. 수원 (0331-214-2225)

외국어 교육 1번지!

외국인 시사와 학원

HYUNDAI SISA LANGUAGE INSTITUTE

英 語 · 日 語 · 中 國 語

TOEFL	실용영어
TOEFL LC	영어능력검정
TOEIC	일본어능력검정
AFKN 회화	영어회화(한국인)
TIME	영어회화(미국인)
VOC. 22,000	일본어 초·중·고급
영문독해	일본어회화(한국인)
영문듣기	중국어 초·중·고급

ECC 영어회화 과정

- 정원제 · Level Test 실시
- 전강사 Native Speakers

일본인 일본어 회화과정

매월 1일 개강 - 수시등록·수강

전화: 276-0509(대)

파고다 공원 맞은편 시사영어사 뒤

CHUNG MOON LANGUAGE INSTITUTE

언어로! 영·일·중·불·독 세계로!

Everybody's talking about ...

중로2가 종로서적뒤 TEL. 738-5151

청문외국어학원

과지봉단은 각 학생회로 집합

문화단신

외대연극회, 정기공연 가질 예정

서울캠퍼스 동아리 외대연극회는 9월 1일(목)부터 3일(토)까지 3일간 서울캠퍼스 대강당에서 제50회 정기공연을 갖는다.

각각 강릉준비의 '폭풍의 바다'를 무대에 올린다. 이번 공연의 주제는 '4.3항쟁 이후에도 끝나지 않은 이데올로기의 대립'이다.

'단순히 연극으로 그치지 말고 현실참여를 투영시켜 이해했으면 한다.' 이 연극의 기획을 맡은 박기남(법·법학 3) 군은 기획의도를 밝혔다.

이번 작품은 10월에 있을 전국 대학 연극제에 출품도 할 예정이다. '폭풍의 바다'는 1일(목)과 2일(금)에는 오후 6시, 3일(토)은 오후 4시와 7시에 각각 상연된다.

전태대 왕산에서 성황리에 개최

전국 3대 대학(문과 서울, 용인캠퍼스, 부산외대) 태극기와 학생들이 모인 가운데 치러졌다.

올해 세 번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용인캠퍼스 태극기와 주축으로 전국 3대 대학(문과 서울, 용인캠퍼스, 부산외대) 태극기와 학생들이 모인 가운데 치러졌다.

전국 태극기와 친목도모와 단결을 위해 마련된 이번 자리는 첫째 날 개막식으로 막이 올랐다. 둘째 날에는 농구와 피구 등의 체육대회와 문화공연, 캠프 등이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졌다.

이번 대회를 주관한 부산외대 학생은 "같은 아들을 배운다는 것 하나로 단결할 수 있었다" 대동성에 참가한 소감을 밝혔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란 문구가 있다.

통일은 우리의 소원일 수만은 없다. 오히려 통일이 살 길이란 민중가요가 있다.

그리고 여기 '통일'을 노래한 대중가요가 우리 곁에 있다. 서태지와 아이들의 '발해를 꿈꾸며'가 바로 그것이다.

통일과 교육, 현실 비판적인 메시지에 트레시매탈에서 열리니티브 록까지, 8월 5일 광복절을 기해 서태지, 이주노, 양현석 이 세 젊은이들은 대중음악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열풍을 몰고 왔다. 그들 리더이자 음악감독이며 탁월한 전파 가진 서태지. 그를 만났다.

그는 왜 해동성국 발해를 꿈꾸는 것?

"발해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땅이 가장 넓고, 우리나라를 통일시켜 화합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늘 하고 싶었던 프로젝트(메탈, 록)였고-통일이란건 너무 교묘하리만큼, 젊고나 심이오면서 느낀 것들을 노래하고 싶었어."

이렇듯 현실에 반하고 같은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생각이 통일이고 이에 걸맞은 해를 노래하길 원했다. 통일이 왜 늦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는,

"멀리 봐야 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통일을 왜 하는지, 통일이 어떤 모습으로 보일지 생각해 하고 있다고 덧붙인다."

통일노래 발표한 가수 서태지씨를 만나



신세대들을 대상으로 한 통일에 관한 설문조사를 우연히 본 것도 큰 모티브가 되었다. 설문조사 내용은 '통일을 하면 우리나라 손해', '통일하면 더 혼란스럽고'라는 의견이

아요. 노래로 내용을 전달해 느끼게 하고, 실천하게 하고, 그게 제가 할 일인 것 같아요."

그럼 서태지는 통일의 두 주인공 중 북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그는 '갈라진 땅의 친구들'이라는 애매모호한 답을 했다.

'외대생들이 자신의 위치에서 열심히 살길 바랍니다'라는 외대인에 대한 인사를 끝으로 서태지와의 만남은 끝을 맺는다.

서태지는 '어떻게 통일을 하자'는 내용을 속 써져 있는 통일을 노래했다. 어쩌면 이것은 '통일'에 있어 가장 민감한 부분일까.

서태지와 아이들의 '발해를 꿈꾸며'나 '교실이야'는 '통일'과 '교육'이라는 현실비판적 내용으로 또, 앞의 한계를 안고 있다고 치러

리도 사회에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통일을 주제로 한 노래는 다양해서 대중음악의 지평이 넓어졌고 통일운동에도 넓어진 셈이다. 그런 통일운동의 대중화라는

성과의 반증은 통일이 아닐까. 서태지는 통일을 우리 시대의 구체적 과제로 느끼지 못하는 아들에게 '통일'이라는 화두를 던진 것이다.

"시원스쿨 발의 문을 열고 나갈 길을 찾아요. 언젠가 작은 나의 땅에 경제권이 사라지는 날 많은 사람이 마음속엔 희망들을 담았지"

"발해를 꿈꾸며" 중-자, 우리의 현실문제에 시원스쿨 발의 문을 열고 현실을 제시하는 건 아닐까.

〈문화부〉

문화 응답

작은 영화 큰 세상

'세상에'가 영화진흥공사의 후원으로 한국영화에 대한 산업계를 조정하고 잠재적인 영화제작자들을 양성해 한국영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기획한 18mm 단편 영화제다.

두자이 이야기의 이정국 감독이 만든 '백일몽', 파업전야의 정동호 감독의 '그날이 오면', 이재용, 변희 감독의 '호로 비디오텍스' 등 7명도 있는 감독의 작품부터 신진 감독들의 단편작을 감상할 수 있다.

상업영화에서 발견되지 않는 독특한 실험성과 탐구정신이 반영된 단편작들은 일반관객들이 한국영화에 보다 신선한 느낌으로 바라볼게 할 것이다.

일시: 9월 1일(목)~4일(일)
장소: 개포아트홀

문의: 514-4181, 512-2408

순종하는 진리

-서강대 방송국

시각적으로 보이는 한 학생의 눈을 통해서 본 1994년 서울의 모습을 배경으로 박종철의 발언이 묻고 온 과정과 박 총장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비판하는 입장까지 다양한 목소리를 담은 다큐멘터리이다.

이를 통해서 진실과 정의의 울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진정한 눈을 키우는데 보탬이 될 것이다.

문의: 705-8263 (서강대 방송국)

북한 문화의 역사적 이해

-김재용 저

8.15적주의 민족문화에서 유원사상까지 확립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북한문화의 변화양상과 그 역사적 의미, 문제점을 다뤘다.

특히 1990년대에 나타난 조국통일과 사회주의 현실을 주제로 한 북한 소설의 변화양상을 연구했다는 데 의의가 크다.

북한 문화가 더 나아가 통일문화의 이해를 위한 지침을 이룰 수 있는 이 책을 통해 접근하기 어려웠던 북한 문화에 대한 전체적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문화와 지성사·8천원)

역사연구 (제3호)

-역사학연구소

우리 역사를 민족 주체의 입장에서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연구한다는 목적으로 설립된 역사학 연구소의 반년간지이다.

이번호에는 일제강점기 해방까지의 상황을 다각도에서 연구한 논문과 사회주의운동의 연구방향에 대해 이론적으로 비판한 글이 실렸다.

(가름·8천원)

새들은 제 이름을 부르면 다

'연극은 배우에게서 연극의 중심은 배우'라는 명제를 갖고 창단한 '연극무대-동-수'의 창단공연이다.

함양한 80년대를 거쳐 90년대를 사는 젊은이들의 고통과 좌절, 사랑과 우정을 각기 다른 삶을 사는 다섯 인물을 통해 묘사한다.

장소: 대학로 김길소극장
일시: 9월 29일(목)까지
문의: 723-9317

외대인이 외대인에게

—직원 전현수씨(도서관 근무)가 소개하는 소설 '토담'

조선인의 껍데기에 남아있는 조국의 향기



1920년대 일제의 탄압을 피해 미국으로 이민한 두 부부의 미국생활에서의 어려움과 그들 주변의 사건들을 다룬 작품으로 당시 한국인의 미국인인 1세들의 고향과 고국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역경을 이겨내며 타국에서 발판을 다져가고 있는 우리대 사람들의 힘겨움을 그리고 있다.

이제는 비단 한국인뿐 아니라 동양인으로서 막대한 꿈과 희망을 가지고 미국에 이민한 이들과는 감정을 담고 있는 게 아닌가 한다.

제 1편은 '메추리'로 조선의 전통적인 양반가문에서 태어나 남다른 문도 보듯 한 나라로 이민

과 겪는 수많은 사건과 서구문물의 정복으로 인해 자란 '미국인화'되어 가는 과정과 그들 주변의 사건들을 다룬 작품으로 당시 한국인의 미국인인 1세들의 고향과 고국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역경을 이겨내며 타국에서 발판을 다져가고 있는 우리대 사람들의 힘겨움을 그리고 있다.

제 2편은 '전원'으로 평범한 농부의 아들로서 태어나 시대상황으로 인한 미국화, 사랑과는 아내와의 알 수 없는 갈등과 무감각, 주변 여인으로 인한 고뇌로 집과 가정을 떠나야 했으며 결국 가족들에게 슬픔조차 주지 못한 돌연한 그 죽음, 마지막 제 3편은 '페이퍼'로 미

국에서 태어나서 자라온 '조선인'이나 '통일'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 상이하는 '미국인'의 모습과 그 나라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라는 질문을 던지는 그의 주된 상황, 그리고 그녀의 어머니를 보면서 자기의 모습을 그려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작품은 외국으로 이민한 한국 사람이 제1인 시점으로 생각으로 제1인 한국적인 아름다움과 고국에 대한 그리움을 담으며 했으며 지금은 우리가 있고 살았던 토담에 둘러싸여 있어 있는 주된 집합이라는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 통일노래한마당에 참가한 세사리를 만나

"통일에 보탬이 되는 노래 부르려고 싶어요"

'한라산 / 와해 세사리, '하나가 된다'/' 지난 방학동안 열렸던 서울지역총학생연합(서총련) 통일노래한마당(통노)에서 서울캠퍼스 독교와 노래대 세사리(세상살아가는 이야기)가 동부지역총학생연합 통노한 영예의 1등 백두산에 이어 2등상인 한라산을 안았다.

'하나가 된다'는 세사리의 한사람 한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만든 공동 창작곡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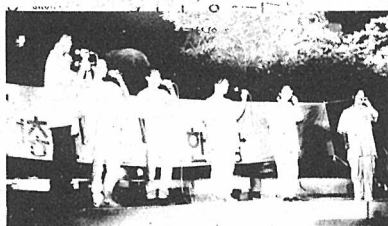
"함께 만들어서인지 곡에 대한 우리의 애정이 대단해요.", "서로에 대한 사랑도 두터웠어요"라며 세사리는 한목소리로 얘기한다.

지금 우리 민족에게 가장 중요한 과 무의미함을 고민한다 '통일'로 외치는 도아졌을 때장을 맡고 있는 이동희(사법·독교), 세사리는 듣기 좋으면서 가슴에 와닿아 한마음으로 부를 수 있는 노래를 만들고 싶었다고 한다.

통노한, 서총련, 한총련 통노한을 거치면서 여러번 손이 간 '하나가 된다'는 7월에 열렸던 노래대에서 배운 것들을 심심 활용했다고 한다. 세사리의 통노한 참가와 수상은 계기로 통일노래의 대중화와 함께 외대인의 문제의 역할이 더 배가되는 기회였다.

세사리의 노래대처럼 하나가 된다 같은 발자취를 담았지만 서로 다른 역사책이 아니고 지주 통일을 가르쳐주는 민족의 이야기를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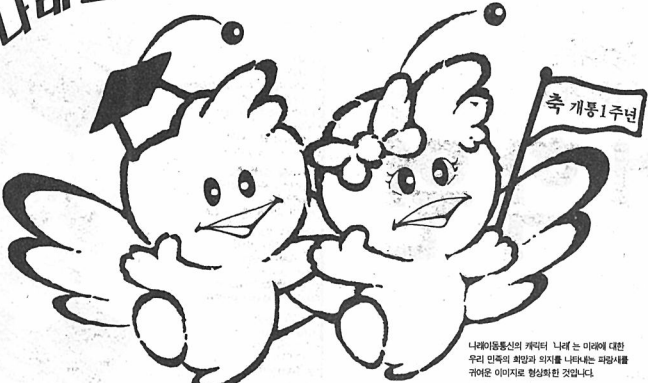
세사리는 한총련 통노한에까지 참가했지만 입상은 하지 못했다. 한편 지난 14일(일) 서울에서 있었던 한총련 통노한은 예전과 다름없이 다양



지난 8월 5일(금) 한양대에서 서총련 통일노래한마당이 열렸다. 하고 작품상 있는 곡들이 많이 참가해 통노한의 질적발전과 대중화가 빠르게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예술상에는 부산외대 나와나이의 '부활의 전당'이 기백상에는 상백대 정백의 '통일의 새날을 향해' 모범상은 원광대 뱃목기의 '영성이 소리가' 각각 수상했다. 최고상은 '민족 대안전'으로 인천대 노래대전의 '애국의 씨앗'이 수상했다.

〈문화부〉

015 나래텔



안녕하세요! 우리 캠퍼스에서 만나요

다정한 내친구
015 나래텔
더욱 가깝게
더욱 경제적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고감도 세대를 위한 고감도 배배
이제 캠퍼스에서 쉽게 만나보세요.

축개동 1주년

나래이동통신의 개척자 나래는 미래에 대한 우리 민족의 희망과 자질을 나타내는 파랑새를 키워온 아이처럼 항상 밝은 웃음을 지니고 있다.

015 나래텔 개동 1주년 기념 대학 순회 A/S
기간: 9월~9/14
일일: 각 대학 철학 대강당에 문의
015 나래텔 외국어대 장학 대명령
(서울) 도시권 고려캠퍼스 ☎ 969-0460 (용인) 북지캠퍼스 테코캠퍼스 ☎ (0335) 30-4494

015 나래텔
나래이동통신
대표전화: (02)3633-015
서울특별시(02)3633-015

□ 배낭여행기-어느 복학생 배낭여행자의 눈에 비친 신세대 배낭족

허공에 떠 세계를 보는 것은 아닌가?

기대가 가지 않는 이별현

취미로 공학을 익히며 원인으로 향하는 스위스항공기 내부의 모습이 낯설지 않다. 승객의 절반 이상이 한국의 대학생이기 때문이다. 마치 배낭여행 안내 해지를 펼쳐 놓고 말을 걸거나 다른 노드로 노약자 및 노숙자를 가운데서도 놓아두는 모습이 익숙한 것이다.

원리보다 많은 과학은 전기공학을 전공하고 있는 신세대이다. 여행경비를 부모님에게 모두 의존해다니 강남의 작지 않은 아파트에 산다는 그를 이해하는 것 단서인 셈이다. 그는 컴퓨터 동아리 활동을 하였고, 한 달 두 번 한 달이. 나가고 싶을 때 나가고 나가지 싶으면 그만인 것이다. 몇몇 불참할 때마다 생활의 순환하는 선배의 말이 사생활에 대한 간섭으로 느껴져 '말을 버렸다'는 것이다. "그래도 동아리가 유지 되려면 무슨 소속감이나 규율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반문에 그의 대답은 단호했다. 그것보다 "개인의 자유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 그는 텔레비전 드라마 '내일은 사랑'에 나오는 이별현처럼 대학생살을 하고 싶었다. 그래서 이별현처럼 독서모임을 꾸리고 있는 중이다. 신인상 수필대회 때 받은 말을 썼던 동료 몇 명과 자신의 당구장비를 '추진'하는 친구들이 그들이다. 모임은 주도하면 자신이 섭섭함을 느꼈다는 '간섭'하는 선배의 역할을 해달라 할 때도 있지 않았는데는 물론이다. 대단한 단단한 담은 당혹스러웠다. "언나오면 그만이지 관습을 필요로 하는 거 아니냐?"

이것이 이른바 '신세대'의 일반적인 정서라면 그들에게 기대할 것은 적은 셈이다. 대학 박물관에서 만난 신이무개라는 전철학 전공의 여대생도 2학년 학생으로 스승 동아리를 하고 있었다. 피아노 피아노로 해서 모은 돈에 용돈 일부로 보태 여정에 올랐다는 그녀의 제안은 박물관 내에 있는 한국관을 둘러보고 돌아와서 우리에 기대(?)는 그녀의 볼록은 얼굴과 함께 무너져 내렸다. 독립된 땅의 우리 반박한 일본 정세에 비해 한국관을 관(觀)이라는 이름에 무척하게 흥분하고 있을 사이

계단에 '조리하게' 나앉아 있었으며, 전지품은 고쳐 도장하고 '정리정돈'이었던 것이다.

그들의 표정에는 세제인물이 우리 문화에 일 본된 듯 못한 것으로 오해 할 것이라는 우려와 억울함이 역력했다.

—대단한 민족주의자에 애국자를 만나서 영광입니다. 이거.

나의 너스레에도 그녀의 굳은 표정은 누그러 지지 않았다.

"우리의 문화유산이 일본에 뒤질 게 뭐가 있어요?"

—그럼요, 그렇지 않 꼭 그렇게 기분 나쁠 일은 아니네요. 침략자들에게 귀중한 우리 것을 뺏긴 것 같아 오히려 다들 슬피지 않아요?

듣고 보니 그렇다며 내 말에 동의해 준 그녀는 시계를 보더니 애국을 실천하라며 내 등을 '부담'없이 밀면서 말했다. "빨리 나가자구요. 어글리 코리아(Ugly Korean)이라는 편지 안 뜰는 것도 애국 아니겠어요?" 폐관시간인 다섯 시가 겨우 1분도 안남았음을 확인한 우리

는 종종 박물관을 빠져 나왔다.

어글리 코리아? 해리행이 대중화 된 '역사'와 함께 그 생활을 같이 해 왔다는 이 모멸적인 말에 대한 배낭여행자들의 강박관념은 대단한 것 같았다. 기껏 여행국에 외박해서 시켜주고 이같은 비아냥거림을 들어야 하는 것은 전지 기 힘든 수적인 것이다. 단체배낭을 나신 분들

들끼리는 꽤 장차지 않을 만만 일에도 농담삼아 '어글리 코리아'하며 웃곤 하는데, 이는 남다른 피로와 전지품의 생활의 긴장이 느슨해질 때 이같은 자성체의 약화를 내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그래서인지 눈에 띄는 작품들은 보지 못했다.

무관심의 한국인

"텔레비전이나 책을 통한 체험은 외당지 않는다. 무엇이든 직접 뚜렷하게 느끼고 그래서 육감적인 성취감을 맛보고 싶다."

옥스퍼드대학교에 만난 김이무개라는 스승도를 신세대라고 '자신있게' 말했다. 한달 남짓한 여행 동안 대학이 만만은 확실히 구경하고



스페인 관광 거점에서 거리의 미용사에게 머리치료를 맡긴 한국 여학생. 뒤엔 한국 배낭족들이 무리지어 서 있다.

가졌다. 여행목적이 비교적 뚜렷한 배낭여행이었다. "옥스퍼드가 대학교도시의 학구적 권위와 관광도시로서의 상품성 사이에서 제대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에 비하면 호강스런 이야기 같아요."

주변사람들의 생계를 근 거로 자주 소비적인 행위를 하는 학과를 알박해와 머잖아 발마다 불야성을 이루는 유흥지가 될 것 같다는 그녀는 그녀: 최고의 대학이라는 자 기 학교가 조리하게 느껴졌다. 신세대에 대 한 나의 고정관념의 범위를 넘어선 것에 흥분

을 느낀 일상이 말을 덧붙여 보았다.

—사회학과를 다녔다고 했는데 사회현실에 대한 관심과 참여에 적극적인 편인가요?

"사회학에 공부한다고 해서 그런 기대는 갖 지 말아 달라. 사회학이란 사회과학을 학문적 으로 탐구하고 그 모델을 학문적으로 개발해 가는 학문일 뿐이다."

—그런 어떤 학문도 현실을 외면해서도 안되고 그럴수도 있지 않겠나?

"보통한 건 물론이야."

1학년 때 정치경제학원구의 활동을 했다는 그녀는 "다 예뻐한 일이지"라며 '옛'에 필요 이 상의 하트를 주었다. "학원인 지금은 아니

다. 또한 그런 것에 관심을 갖기 싫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었다.

신세대. 그것은 분명 실재하는 그룹인가?

그 내부에도 이처럼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 지만 여행중에 만난 그들의 공통점은 '행동성 (무비한 80년대식 표현으로는 전두부)의 부패'로 정리 할 수 있었다. 문제에 대한 진단은 같

이 하면서도 그 차이에 있어서 신중함인지 비경 함인지에 혼동을 하는. 발판을 지나 무관심일 수 있는 그 애매모호함이란...아직은 이들의

올바른 관계맺기를 위해서는 더욱 진심한 기술 열기가 필요함을 느끼며 오늘날 도파를 건너야 한다는 그녀를 버섯장류까지 배려해 주었다.

어느 일본 청년의 고백

한편 비슷한 토대의 외국학생들과의 대화는 열거하기 어렵지만 나에게도 토대로 코만트를 만 들었다. 옥스퍼드대, 빈대학, 소르본대학과 같 은 현지 학생들에서 캐나다, 미국, 에쿠아도르

에서 온 배낭여행학생들이 이르거라... 그들의 짧은 만남은 나의 본말, 이방의 본말을 추구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 이 한국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서는 아니

다. 오히려 그 반대다.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나의 질문에 그들의 대답은 한

결같이 "잘 모른다"로 시작됐다. 비단보다 무 서운 것이 무관심이라더니 원...

그러나 그들에게 비친 한국의 모습을 어설픈 게라도 보아보면, '회일회고'로 담긴 사회로 요 약할 수 있었다. 그들은 샌드위치에서 한국인이

스페인과 비기고 강조 목을 붙이붙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모집고 강하다'는 평이었다. 그 리고 그것은 이미지는 자연스런데 한국사화에 대한 이미지도 이어지고 있었다. 호자소리대

맞추어 똑같은 옷을 차려입고 끝을 향해 뛰들

아를 뜰도 없이 돌진해 가는 사회. 반론이 허용 이 안되고 그것을 제기하면 퇴장당하는 사회.

그들의 지적은 주로 한국의 정치문화에 대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내 식으로 해석하

면, 세력의 균형이러기 보다 알박적 독주, 전보 와의 종존이러기 보다 보수적 편식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그들은 물론 '어설픈 이해'라는 전지품 을 붙이면서 이야기 했지만 그들의 지적이 어설픈 프지만은 감히 느껴졌던 것. 왜일까? 그러나

말해주고 싶었다. 그렇기에 자랑도 한 번만

그들과의 한국에 대한 그 모질고 강한 인 상은 다른 성격에서 한국 대중들의 모습이라고

"한국"의 신세대 배낭족들. 그들은 이같은 외 국학생들의 한국관(韓國觀)에 어떻게 반응하고

대답할 것인가? 정면 대답할 준비는 되어 있는

가? 해마다 여름이면 세계를 배우겠다고 유

으로 떠나나 수만명의 우리들은 정작 자기 땅이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이해와 실천에 인색한

은 없는가?

피리를 불고 이어지는 이 세상스런 나의 고

민을 그나마 '행복한 코만'으로 추켜세워준 사 람이 있었으니 열광하게도 그는 일본 학생이었

다. 시나지도 가도 굳은 미국에서 국제정경학 을 공부한 스물 다섯살의 일본 청년. 뽕기애에

서 내일만도 향하는 열차의 푸엿에서 만난 그는 '돌이와와 부산항'을 나즈마며, 그쪽지

만 또렷히 불러 "나의 시를을 통과한, 한국을

제나 잘 알고 있는 청년이었다."

그는 내가 듣지도 않은 우리의 학생운동에 대한 자기 느낌을 먼저 얘기하는 것이었다.

"한국에서는 학생운동이 활발하다고 했었다.

한국 학생들이 사회참여적이고 활동적인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 좋은 일이다. 같은 젊은이로서 나는 일본의 미래가

걱정스럽다. 자만할도 사회당도 지지하지 않는 데 그들이 11세기를 준비하는 일본의 대안세력 이 아니라라는 생각 때문이다. 일본은 정치도 경

제도 문화도 바뀌어야 한다.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젊은 세대다. 그러나 일본의 학생 들은 그것에 관심이 적은 반면, 자신의 안락한

생각이나 놀고 마시는 것이 익숙해 있다. 안타

깝다..."

최 원 일

<법·법학 4>

□시

조국과 나

혼돈과 절망이 겹칠전 시대
반세기기를 드러온 검은 그림자의 악령들의 세

계
이제 그만 피를 뿌렸으면 한다
이제 그만 반이성의 미지광이 눈에서 벗어

났으면 한다
나의 조국은 위대한 문명의 나라라고 소리치

건만
그 나라에 아수의 눈빛만이 이글거리고
나의 조국은 염연한 단원의 피가 흐르건만

그 나라에 동족의 죽음에 사상의 오만과 편

견의 독만 두터워지고
보수의 권력과 보수의 권력자를 위한
엄친의 학살극은 여느해와 마찬가지로 정발 마

찬가지
이렇게 앉아 당혹감만 있을 수 없다
청년이며 / 우리에게 저들이 갖지 못하는

조국을 사랑하는 순수가 있고
청년이며 / 우리에게 저들이 무시위하는
조국통일의 당찬 일념이 있다

외친대 분기행진 일이나 논쟁의 종지부를
찍으라
이제 싸움은 좌우의 싸움이 아니라

이 나 이 민족을 병들게 하는 분단에서 벗

어나는 일이다
이제 싸움은 통일과 반통일의 싸움이다
나로부터 싸움의 발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싸움은 또한 허탈했다
반세기를 넘겨진 언젠가
새움을 끓인 반세기

모든 생명의 피고 잠이 멈춘지
반세기
억장 무너지는 슬픔을 보듬어 안고 살아온지

반세기
아반의 칼날아래 손도 못쓰고 비밀히 죽어간
지 반세기

우리가 바라는 건 저 더러운 권력이 아

니다
내가 원하는 건 호의호식 자본의 풍요가 아

니다
나의 사랑하는 조국
나의 조국 태초의 모습 그대로

중간난 허리 고스란히 이어
아무의 간섭없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살

이다
아 / 사랑하는 조국이며
그대 보드라운 피부를 누가 핏줄고 지나갔는

가
그대 손뼉의 평화를 누가 깨뜨려 놓았는가
조국이며.

통일열원 반세기 여드랫날

한 반 도

<본교 법학과 92년도 졸업>



두번째 학사모

아들의 학사화인 수여식
대 처음 써본 학사모. 벌써
두번째 학사모 수여식이 열
렸다. 모자이크에 그려진 보
의 눈물을 흘린다. 93년도
후기 대학원 학위 수여식에
서. <시진부>



거기는 안전합니까? 지금 이곳은 !

왕산학생회가 세워진지 15년, 애국외대 통일왕산

그 이름에 우리의 모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분단된 조국에 태어나 하나되는 민족을 위하여 이 몸뚱이 하나 밟히고 피땀들어도

우리는 들끓처럼 다시 더 튼튼하게 일어섰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강인한 생명력에 시기하는 이들이,

우리를 두려워 하던 바로 그들이

굴리앗의 입김으로 우리를 쓰러뜨리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두 손엔 작은 장들이 들려 있습니다.

'94법민족대회'를 마치고 귀가하던 양태초(인도어과 학생회장) 이정익(중국어과 학생회장) 김정미(아랍어과 4년) 우리의 친구들이 대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연행되어 지금은 '주체사상 연구회'라는 조직사건으로 밀폐된 곳에서 3일간을 뜬눈으로 지새며 허위 조서를 받아적기 강요당하고... 지금은 국가보안법의 굴레에 켜여 구속돼 있습니다.

문민정부를 자처하는 시대에 아직도 인권이 유린되는 불법연행이 자행되고 있음에 우리는 분노합니다. 우리는 확실한 싸움만 합니다.

학생회 탄압을 중단하고 수배 해제하라 !

제15대 의기충천 총학생회

학술상 문학상

